

경제

# 대형마트·SSM 의무휴업날 영세가게 58% “매출 늘었다”

## 골목상권 살아나나 <中> 상권 꿈틀

대형 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의무휴업이 시행되면서 광주지역 골목상권이 활기를 되찾을지 주목된다. 그동안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잠식해온 대형 마트·SSM 의무휴업에 따라 골목상권의 매출 신장으로 이어지는 등 얼어붙었던 상권이 '꿈틀' 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 광주시, 자치구별 휴업일 맞춰 효과 전통시장 이용 시민들 의식도 중요

이는 광주시가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에 따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발 빠르게 대형 마트·SSM의 영업제한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한 덕택이다. 광주시는 전국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지난 4월부터 의무 휴업일을 적용했다. 아직까지 다른 광역단체는 산하 모든 기초단체가 통일되게 조례 개정을 완료하거나,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미루볼 때 광주시의 적극적인 대처가 눈에 띄는 대목이다.

권들이 상당한 휴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대형 마트와 SSM의 첫 의무 휴업일인 지난달 23일 전통시장 5개소의 200개 업소와 중소형 슈퍼마켓 118개 업소, 골목상권 182개 업소 등 총 500개 업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66.2%인 331개 업소가 '긍정적'이라고 답변했다. 매출액과 관련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8%인 288개 업소가 '증가했다'고 답변해 효과가 상당 부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5개 전통시장의 경우 '매출액이 증가했다'는 답변이 전체 280개 업소 중 126개소(63%)로 나타났으며, 슈퍼마켓은 조사대상 118개 업소 중 105개소(89%)로 집계됐다.

특히 규모가 큰 체인점 슈퍼의 경우 조사대상 11개 체인점 모두 '매출액 증가'가 있었다고 답변했다. 광주시는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로 미루볼 때 대형 마트 의무휴업일 지정이 골목상권에 일시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자본과 유통구조를 앞세운 대형 마트와 경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우선 중소기업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공동마케팅사업, 전문점포 지도, 상인교육 실시 등 경영혁신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미소금융, 햇살론, 빚고을론 등 서민금융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상인대표와 관련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자금지원 확대 방안, 시설현대화 방안, 골목상권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 등 현안들을 협의하고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대형 마트의 영업제한이 시행되더라도 대형 마트를 선호하는 시민들의 구매 행태가 일시적으로 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에 따라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한 뒤 "하지만 시민들이 대형 마트 의무휴업일이라도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것이 영세상인들을 살리는 길"이라고 당부했다.



대형 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의무휴업이 시행되면서 얼어붙었던 광주지역 골목상권의 매출이 늘고 있다. 광주지역 밀집 상권인 동구 충장로 상점가에도 고객들이 늘어나는 등 활기를 찾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고급매장 대신 실속형 쇼핑공간...백화점의 대변신

## 롯데백화점 광주점 '물가 안정 프로젝트' 578㎡ 행사장 마련 연중 내내 실속 행사



지난 3월 롯데백화점 광주점 8층 이벤트홀에서 열린 '코로롱 대전'이 아토피 아들의 유류를 사려는 인파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대규모 실속형 쇼핑공간을 늘려 저렴하고 질 좋은 상품을 제공하는 '경기극복 물가안정 프로젝트'를 펼친다. 롯데백화점은 기존의 이벤트 매장 외에 11월 지하 1층에 578.5㎡ 규모의 '물가안정 실속형 행사장'을 열고 연중 실속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평소 행사를 진행하지 않았던 브랜드 상품군까지 전면 확대, 소비자에게 다양하고 질 좋은 실속상품을 제공해 고물가 시대에 가계부담을 덜어 주겠다는 것이다. '물가안정 행사장'에서 준비한 첫 번째 기획전은 '여성 정장 대전'(15일까지)으로 영계주일부터 엘레강스까지 유명 여성류 브랜드의 상품을 다양하게 준비해 최대 70% 저렴하게 판매한다. 또 같은 기간 여름 스포츠 의류와 관련 용품을 40~60% 할인 판매하는 '스포츠 대전'도 함께 진행한다. 16일부터는 '영계주일 데님 페스티벌'이, 22일에는 '여성의류 초특가 3일장', 25일부터는 '영계주일·커리어

군일대전'과 '진·이치캐주얼 페스티벌'이 잇따라 열린다. '경기극복 물가안정 프로젝트' 제 1탄 실속형 대형행사도 프리미엄급 대형가전을 할인 판매하는 '삼성전자 스마트 로드쇼'도 11일부터 15일까지 8층 가전매장에서 동시에 열린다. 3D TV, 스마트 에어컨, 김치냉장고 등 삼성전자의 신제품을 선보이는 것은 물론 전월상품 가격차, 최대 100만원 보상판매, 구매 금액대별 사은품 지급 등 추가혜택도 풍성하다. 또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3D 체험관도 운영,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류민열 롯데백화점 광주점장은 "질 좋고 저렴한 상품을 다양하게 공급해 지역 소비자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번 프로젝트를 기획했다"며 "광주점에서는 경기극복 물가안정 TF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실속형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여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기자 emlee@kwangju.co.kr

## 가장 빨리 팔리는 중고차 아반떼MD

### 9일 이내 매각...스포티지R·투싼ix 3위·5위

중고차 시장에서 가장 빨리 팔리는 중고차는 아반떼MD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최대 중고차 업체인 SK엔카는 최근 2개월 동안 홈페이지에 100대 이상 등록된 모델을 기준으로 판매기간을 집계한 결과 제일 빨리 매각되는 중고차는 2011년식 아반떼MD였다고 9일 밝혔다. 이 차량은 중고차 시장에 나오면 평균 9일 이내에 매각됐다. 2위 역시 2010년식 아반떼MD가 차지했다. 평균 10.4일 안에 판매됐다. 준중형차는 유가 부담도 적고 초기 구입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중고차 시장에서 가장 거래가 활발하다고 SK엔카는 설명했다. 판매기간 10.9일로 4위를 차지한 라세티 프리미어(2010년식)도 준중형급이었다. SUV(Sports Utility Vehicle)도 중고차 시장에서 많은 인기를 끌었다. 스포티지R(2011년식)과 투싼ix(2011년식)도 3위(평균 10.7일)와 5위(11.4일)에 이름을 올렸다. SUV는 도심 주행은 물론 레저용으로 도 적합해 실용적인데다 유지

비도 저렴한 점이 장점이다. 성능이나 디자인면에서 만족도가 높아 중고차 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했다. 6위 2009년식 NF쏘나타 트랜스폼이 선정됐다. 판매기간은 12.2일로 최신행 YF쏘나타보다 빨리 팔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뉴SM7과 i30, 올뉴모닝 등도 10위권에 들었다. 반면 더 럭셔리 그랜저(2010년식)의 판매기간은 평균 15일, YF쏘나타(2011년식)는 15.2일, K5(2010년식)는 16.6일로 각각 조사됐다. /연합뉴스

코스피지수	1,958.31 (-8.70)
코스닥지수	491.56 (-3.04)
금리 (국고채 3년)	3.39% (+0.01)
원·달러 환율	1,140.40원 (+4.80)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	



9일 지역 중소기업의 맞춤형 건강진단 및 처방을 위한 중소기업건강관리위원회가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에서 열렸다. <광주전남중기청 제공>

## 57개 중소기업에 400여억원 지원

### 광주전남중기청 중소기업건강관리위원회

(주)알파테크 등 지역 중소기업 57개사에 400여억원이 지원된다.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이의준)은 9일 '중소기업건강관리위원회'를 열어 (주)알파테크 등 57개 지역 중소기업에 대해 자금·보증·기술개발 등 총 400여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자금·보증 지원 41건에 390억7000만원, 기술개발자금 지원 11건에 4억1000만원, 마케팅 지원 12건, 공정혁신 컨설팅 6건, 개선권고 10건 등 총 90건의 맞춤형 처방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로써 광주·전남지역에서는 현재까지 총 114개 중소기업이 자금 및 보

증, 기술개발자금지원, 마케팅 및 컨설팅 지원 등 총 160건의 맞춤형 처방을 통해 750여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한편 중소기업 건강진단을 원하는 기업은 매일 10일까지 광주전남중기청(062-360-9106),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본부(062-600-3000), 신용보증기금 영업점(062-607-9184),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062-361-1134)에 신청하면 된다. 광주전남중기청 관계자는 "사업을 시행한 지 3개월만에 181개사가 참여하는 등 기업들의 호응이 크다"며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대한불교조계종 문민정사 남골당 허가번호: 제2006-1  
**극락전 남골당**  
선망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모든 이들의 영원한 안락과 쉼터  
가깝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  
무등산 문민정사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 후손들의 무관심과 관리소홀 별초를 하지않아 황폐화 된 묘, 때가 벗겨진 묘, 동철기를 거치며 붕괴된 묘, 개인이거주의 만연과 전통적인 집단묘 및 친족, 이웃간의 상충부조의식 해이로 전국 무언고 묘는 총 묘지 2천만기의 40%인 800만기에 달하고 있습니다.  
● 사신에도 해로운 매장 이장을 해본 사람들은 분분속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승보다 더욱 편안해야 할 사신이 너무 뿌리과 벌레, 습기의 침해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시는 장례비 조상을 멀리 떨어진 산에 도셔 거친 자연환경과 천재지변 속에 두고두고 고통받게 하는 것보다 화장을 하여 남골당에 봉안하면 언제나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 문민정사  
무등산 문민정사 남골당 전경  
무등산 문민정사 남골당 예약 및 봉인문의 062) 228-0108, 010-5103-4004, 010-7179-0108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프리모남녀가발**  
21년 가발 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신제품 50만원~  
특수가발 발매!!!  
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 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리안기든스가 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 장 이 수 채 011-607-5330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검색  
대산프리모가발